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럭 출항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10일 첫 블럭 출항식 행사를 가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김관영 도지사, 김영준 군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제공>

올해 산림복지 분야에 2602억 투자 추진

전북도, 산림시책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유...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중점 등

전북도는 10일 전북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대강당에서 '2023년 산림복지분야 설명회'를 열어 산림시책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 14개 시군 산림부서장과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임업기능인훈련원장, 한국산기술협회, 산물방지기술협회,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무를 공유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와 가꾸기, 탄소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확대 등 '도민행복'을 더욱 향상하는데 협력을 다짐했다.

전북도 2023년 산림복지분야 예산규모는 총 2,602억원(시·군비 등

포함)으로 전년 대비 4.42% 증가했다. 특히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 투자규모는 산림자원관리 478억원, 산림재해대응 648억원, 산림복지 활성화 846억원, 임업경쟁력 강화 119억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등 기타분야 511억원 등이다.

우선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1,909ha) 및 숲 가꾸기(1만2,725ha)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특성에 맞고 경제성이 큰 수종을 식재하고, 나무의 연령과 기능에 따른 숲 가꾸기로 안정적인 목재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

헬기(3대) 운영, 산불진화차량(3대)·산불소화시설(1개소)·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4대) 등 진화 장비를 확충한다. 산불예방 숲 가꾸기(700ha), 숲 가꾸기 산물수집(125ha)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도 추진해 산불 발생을 최소화한다.

더불어 산림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한 임업인 지원을 위한 임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된 임업직불제를 지속 실시하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전북도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자연휴양림(7개소), 치유의 숲(1개소), 산림레포츠단지(2개소)도 조성해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실외정원 등 생활권 녹색공간(53개소)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공간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4개소)도 조성한다.

이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산림보호와 산림서비스 분야에 298억원을 투자해 1,7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생활권 산림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숲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등 녹색생태계 기반을 다지고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소득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문화재 안전관리 능력 입증

문화재 재난안전 분야 · 문화재청 기관 표창 수상

전북도는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인정받아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3년 문화재 재난안전 분야에서 광역도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 안전관리와 방재 능력 강화 실천에 앞장서는 기관, 개인에 수여하는 상으로, 10일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시상했다.

도는 안전점검 및 방재시설 상시 유지관리 안전 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중요 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추진 등 문화재 보존관리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전북도는 지난해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를 중심으로 해빙기·홍수해·산불조심 기간에 소방, 방재, 전기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하고, 문화재 안전사고를 대비한 공사장 실태점검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도 자체적으로 관람객이 많이 찾는 전주 남고산성 등 37개소 중요 문화재의 상시 관리를 위해 특별관리반을 운영하는 등 문화재 안전관리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도 지정 중요 목조문화재에 경보·방범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해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능력 및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정읍 내장사 대웅전 방화 사건을 계기로 화재로부터 목조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5개년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에 목조문화재 42개소에 비상소화장치(소화전, 호스릴 등)를 구축했다. 올해에 10억 원을 편성해 추가로 34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도내 모든 목조문화재에 재난방지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도 축산연구소, 축산기술 전문교육 추진

9개 과정 250명 수료 목표 · 11월까지 진행

전북도 축산연구소(소장 김홍준)는 도내 거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맞춤형 기술교육을 11월까지 진행한다. 올해 25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축산 역량 강화 교육 청년 축산인 육성 교육, 현장실습 교육(WPL), 축산현장 기술교육 등 9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 소재)에서 인공수정 이론 교육 후 축산연구소(진안 소재)에서 실습교육을 진행했던 인공수정 교육을 축산연구소에서 통합

운영해 교육생의 이동 불편을 해소했다. 또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한우 사료관리, 사육관리, 임문과 심화, 한우개량 과정을 신규로 운영함으로써 전문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축산기술 전문교육은 최근 3년간 교육 이수자가 649명에 달할 만큼 인기가 높다. 현장실습교육(WPL)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운영되고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 효과를 위해 기수당 소수 인원으로 15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익산 원도심을 국내 대표 청년 창업 메카로”

정현을시장, 익산 출신 벤처 사업가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회장' 면담

정현을 익산시장이 낙후된 원도심을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국내 대표 청년창업 메카로 조성한다.

정 시장은 지난 10일 판교 테크노벨리에 위치한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회장과 면담을 갖고 벤처기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역의 창업·벤처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측은 익산에 홀로그램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청년 창업 인프라가 집중돼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전국을 대표하는 청년 창업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와 원광대, 다산네트웍스 벤처기업협회는 협력을 통해 벤처기업 성공사례나 지역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을 교류하는 등 구체적인 시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원도심 일원에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홀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창업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이미 원도심을 포함한 도심 곳곳에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와 XR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홀로그램 체험관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됐고 이와 연계해 홀로그램 기업 17곳을 유치하며 XR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왔다.

이를 토대로 시는 연구기관과 창업공간, 기업들을 집적화한 허브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성장축으로 만들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 이하 연구원)은 2023년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공영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계절별, 시

기별(명절, 김장철 등) 다소비 농산물과 월별 특별관리 농산물 위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이용객 및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검사 건수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시·군에서 의뢰한 농산물 검사뿐만 아니라 연구원 자체 수거 업무를 강화해 농산물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정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권역교수 및 권역교수
- 전북대학 토론에 면접 담임교수
- 스피치사격서원 집행위원장
- 한스스피치 등변협회 권역회장
- 전북언어교육원 및 기진, 단재 특강교수
- KBS TV아침매장, MBC TV, JT, TBS코위넷 강연자
- 스피치 칼럼니스트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시장
- 저서 '365스피치어플리케이션' '나쁜 세운, 빌, 빌' '스피치 101' 등
- 스포츠지 기자, 평생교육사, 시낭송시도자 등 지역 초유자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집)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 · 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간과정도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